

'3고'에 경기 침체...광주·전남 1월 광공업 생산·출하 '뚝'

광주 광공업 전년 대비 생산 1.6%·출하 2.4% 감소에 재고 3.3% 늘어 소비는 명절 특수로 다소 회복...건설수주 광주 203%↑·전남 44%↓

광주·전남지역의 산업활동이 연초부터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지역 산업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다만 소비는 설 명절 특수로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수주는 광주와 전남의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광주 전남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출

하도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광주지역을 살펴보면 광주의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했다. 납품전지와 냉장고 등 전기장비는 무려 29.2%나 줄었고, 천연섬유사와 부직포 등 섬유제품도 22.4%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자동차도 6.3% 감소세를 보였다. 생산이 줄면서 광공업 출하 역시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1월 광주지역 광공업 출하는 전년 대비 2.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금속가공,

전자부품 등에서 증가한 것과 달리 전기장비, 기계장비, 담배 등이 감소했다. 냉장고 등 전기장비 출하는 21.0% 감소했고, 담배는 19.8% 줄었다.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기계장비는 3.7% 감소했다. 이처럼 광주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생산제품인 전기장비의 생산 및 출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보복 소비' 등으로 증가했던 가전제품의 소비가, 최근 경기침체로 급격히 감소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광공업 재고도 전년 대비 3.3%가 늘어난 등 재고가 쌓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재고는 31.4%가 늘었고, 알루미늄판 등 1차 금속도 41.1% 줄었다. 맥주 등 음료도 33.4%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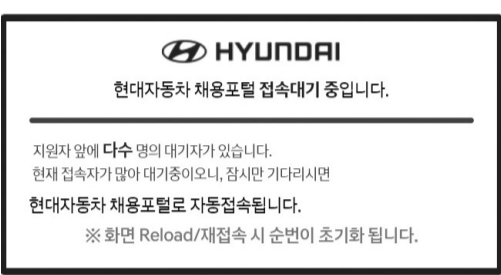
다만 자동차와 음료 등이 재고가 쌓인 것은 12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 이동이 수월하지 않았던 여파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도 전년 동월 대비 10.3%나 감소했다. 화학제품(-14.4%), 1차금속(-6.8%), 기타운송장비(-23.3%) 등이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 또한 전년 대비 7.3% 감소했는데, 화학제품(-11.4%), 기타운송장비(-23.3%), 1차금속(-5.9%) 등 업종의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전남의 광공업 재고는 오히려 전년 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줄었지만 소비는 설 명절 특수로 인해 다소 회복됐다. 광주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했다. 백화점은 1.0% 감소했고 대형마트는

5.2% 증가했다. 전남의 대형소매점 판매도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다. 건설 수주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광주 건설수주액은 589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03.1%나 크게 증가했다. 공공부문은 공기업, 정부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73.2% 감소한 것과 달리 민간부문은 부동산업 등의 증가로 221.1%나 늘었다. 이와 달리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34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4.6%나 줄었는데, 공공부문이 전년 대비 123.6% 급증한 반면, 민간부문은 철강, 부동산업 등의 부진으로 88.8% 급감한 게 영향이 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10년 만에 생산직 모집...첫날 홈페이지 '마비'

12일까지 접수...400명 상당 채용

현대자동차가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을 추진한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신입사원 모집에 나선다는 소식에 채용 홈페이지는 접속 지연 현상까지 빚어졌다. 현대차는 기술직 인재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채용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채용을 '모빌리티 기술인력 채용'으로 규정하고, 차량 전동화 및 제조 기술 혁신 등 산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 성별의 제한은 없다. 채용 인원은 400명 상당이다. 서류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11일간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서류 합격자 발



표는 3월 말이다. 면접 전형은 총 2개 차수로 진행되며 1차수는 4월부터 6월 초까지, 2차수는 5월부터 6월 말까지 각각 실시된다. 각 차수별 1차 면접, 인적성검사, 2차 면접, 신체검사 등을 거쳐 7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입사 교육 등을 거쳐 9월에서 10월 중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관계자는 "10년만에 실시하는 기술직 신입사원 채용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아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차가 채용계획을 밝히자 채용 홈페이지는 수많은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전부터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수 명의 대기자가 있다"는 문구가 뜨면서 접속에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한 취업관련 커뮤니티에는 "이번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가 터졌다. 이 정도면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는 글을 비롯해 "홈페이지 구경도 어렵다"는 등 관련 글이 게시됐다. 한편 사무직과 기술직을 아우르는 현대차의 평균 연봉은 2021년 기준 9600만원 상당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비스포크 에어드레스' 한번에 9벌 관리 삼성전자 모델이 제품 외관 크기는 유지하면서 한번에 관리 가능한 의류 수를 최대 9벌로 늘린 '비스포크 에어드레스' 대용량 모델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일반용량(5벌)과 대용량(9벌) 모델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용량과 사양에 따라 129만9000원부터 209만9000원이다. <삼성전자 제공>

문과생 취직 때 가장 큰 영향...“직무 관련 경험”

고용노동부, 채용담당자 설문 코로나19 '사회활동 부족' 영향

인문계열 대학생이 취직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일과 관련한 경험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알앤씨에 의뢰해 작년 11월 18일-12월 23일 매출액 500대 기업·중견기업의 채용 담당자 758명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 69.1%는 경영·경제학과를 제외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를 채용할 때 가장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직무 경험'을 꼽았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59.8%), '회사 관심도·기업분석'(18.3%), '직무 관련 복수부

전공 이수'(13.9%)이라는 답변도 많았다.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일 경험이 채용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데는 응답자의 89.1%가 동의했다. '직무 관련 자격증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82.6%에 달했다. 반면 학점과 관련해서는 '기준 학점 이상이면 영향 없다'는 응답이 47.6%로 가장 많았다.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를 채용할 때 기대하는 능력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31.8%), '조직 적응력'(22.3%), '보고서 작성 능력'(16.0%) 등이 꼽혔다. 채용 담당자들이 '문과생 취직 역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도 '직무 관련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70.6%)이었다. /연합뉴스

이어 '산업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31.1%), '전공별 직업 경로 등 정보 제공'(22.3%) 등 순이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문과생을 비롯해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나 직무 경험 쌓기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강의를 주로 수강한 '코로나 학반'인 게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냐는 질문에 채용 담당자 92.4%는 '영향이 없거나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채용 담당자들은 '사회적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거나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연합뉴스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